격변하는 동독지역 변화 속 삶

독일 통일의 역사에 관한 사진전

Foto: dpa Picture-Alliance / Jörg Carstensen

콘셉트 및 텍스트: 슈테판 볼레

출판:
동독 사회주의통일당 독재청산재단
신연방주를 위한 연방정부 특임관

한글본 발간: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
5·18기념재단

후원기관: 통일교육원

02

최후의 날

운터덴린덴 거리에 위치한 노이에바헤 앞에서 거행되었던 마지막 위병교대식, 1990년 10월 2일

사진: 하랄트 하우스발트 / 동독 사회주의통일당 독재청산재단

1990년 10월 2일 화요일이었다. 동독 최후의 날 베를린에서는 오늘날의 연방의회 의사당인 라이히스타크 건물(Reichstagsgebäude) 앞에서 자정에 있을 축하행사를 위한 마이크 테스트 소리가 울려 퍼졌다. 맥주와 소시지를 파는 노점들이 문을 열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이 외에는 역사적인 날을 앞두고 있음을 실감나게 해 줄만한 특별한 분위기가 느껴지지는 않았다. 서독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달라진 게 별로 없었다. 동독은 많은 극적 변화들을 겪었다. 일년 사이 동독은 자유, 민주주의 그리고 독일의 통일을 쟁취해냈다. 그런데도 분위기는 다들 생각이 많은 듯 오히려 차분했다.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일상의 문제들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대부분이 동서독 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여나가는 과정이 힘겨울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말로 내뱉는 사람은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 취급을 받았다. 당시 독일이 어떠한 난제들을 직면하고 있었는지를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했었더라면 … 시간이 지난 후 돌아보니 아쉬움이 남기도 한다. 그랬더라도 그날 자정에 밤하늘을 수놓은 폭죽을 보며 느꼈던 기쁨은 결코 작아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 수년 동안 느껴야만 했던 실망감은 줄어들었을 지도 모른다.

03

드디어 서독

"원더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서커스 앞에서 트라반트와 오펠 차량 간 사고가 났다.

사진: 할레(잘레), 1991, 다니엘 비스콥/ 독재청산재단

"꼭 서독에서 온 물건 같다." 동독에서는 1989년까지 동독산 제품을 칭찬 할 때 이렇게 표현하곤 했다. 동독에서도 서독 TV, 서독 친지들이 보내준 소포 또는 인터숍(Intershop)을 통해 서독 제품들을 접할 수 있었다. 수입산 커피와 세탁세제 냄새가 뒤섞여 서독의 향기를 풍겼던 인터숍은 서독마르크로 물건 값을 지불해야 하는 곳이었다. 1990년 7월 1일 동서독 화폐통합이 이루어지면서 하룻밤 사이 동독 전역이 인터숍이 되었다. 동독산 제품들은 상점 진열대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더 이상 동독 농업생산협동조합 젖소가 생산한 우유나
동독 할버슈타트산 소시지를 먹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었다. 동독의 소비자들은 그 동안 그토록 원했던 서독 제품들만 찾았다. 그러다가 점차 새로움이 주는 매력은 약해졌고 동독의 대표 상품들인 슈프레발트 오이피클이나 템포 렌틸콩을 찾는 사람들이 갑자기 다시 생겨났지만 그 사이 동독 기업들은 많은 경우 이미 파산한 상태였다. 통일 이후 살아남은 소수의 동독 브랜드 역시 지금은 거의 다 서독 사람의 손에 넘어간 상태다.

04

믿음

동독 인민의회 선거 사흘 전인 1990년 3월 15일 헬무트 콜 연방총리가 참석한 코트부스의 한 선거유세장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이다.

사진: 안-크리스틴 얀손 / 독재청산재단

"헬무트, 우리 손을 잡고 경제기적의 나라로 인도해주십시오." 1990년 라이프치히를 방문한 헬무트 콜 총리를 환영하는 한 플랜카드에 적힌 문구였다. 바로 한 해 전에만 해도 동독 주민들은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결연한 의지로 사회주의통일당(SED) 독재정권을 무너뜨렸다. 그러나 이제는 서독에서 온 연방총리에게 희망을 건다. 그는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말을 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직책과 겉모습과 팔츠지방 사람다운 붙임성 좋은 성격을 통해 서독에서 온 부자 삼촌 같은 느낌을 주었다. 작센 주에서는 쿠르트 비덴코프(Kurt Biedenkopf), 튀링겐 주에서는 베른하르트 포겔(Bernhard Vogel) 그리고 브란덴부르크 주에서는 만프레드 슈톨페(Manfred Stolpe)가 총리가 되었고, 동독 주민들은 이들이 어떻게 해서든 그들의 바람을 충족시켜 줄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그들의 바람 중 실현되지 못하는 것들이 하나 둘 생기면서, 믿음은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다. 콜 총리를 비롯한 정치인들을 향해 야유가 쏟아졌다. 다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저 위에 있는 그들"에게로 돌아갔고, 사람들은 자녀를 손에 잡고 분명 어딘가에 존재할 기적의 나라로 인도해줄 새로운 아버지를 찾기 시작했다.

05

공통성

1995년 6월 베를린의 라이히스타크 건물이 2주간 직물에 쌓여있었다. 크리스토와 잔 클로드의 이 예술프로젝트는 전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사진: 볼프강 폴츠 / laif

서독의 수도였던 본(Bonn)에 위치한 연방의회 회의장이 1991년 6월 20일처럼 가득 매워진 날은 많지 않았다. 통일독일의 정부 소재지를 결정하는 자리였다. 40년 간의 분단 기간 동안 모든 정당의 정치인들이 독일의 수도는 베를린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수도를 베를린으로 옮기는 문제가 구체화되자 본을 사수하려던 로비세력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다. 다수의 서독인에게는 라인 강가에 위치한 본이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독일 그리고 세계대전 이후 패권야욕을 버리고 치유된 독일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공론장에서 시작된 치열한 논쟁이 연방의회로 이어졌다. 의원들은 12시간 동안 토론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단 18표 차이로 베를린이 수도로 결정되었다. 정부와 의회의 이전은 1999년이 되어야 시작 될 것이었다. 실질적 이전이 시작되기까지 남은 시간이 반쯤 지났을 무렵인 1995년 6월 크리스토와 잔 클로드(Christo & Jeanne-Claude)는 오랜 구상 끝에 라이히스타크 건물을 직물로 감싸는 프로젝트를 선보였다. 베를린으로 수도를 이전하기로 한 연방의회의 결정은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독일의 내적 통일을 위해 중요한 결정이었고, 이 예술프로젝트는 수도 이전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마지막 사람들의 마음까지 감싸고 바꾸어놓았다.

06

탐색

1994년 켐니츠에 있는 "라이제벨트" 여행사다. 사진 속 가족은 터키의 리비에라에서 휴가를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사진: picture alliance / ZB / 볼프강 티메

동독 시절에는 특정 세계관을 주입 받았지만 세계를 눈으로 보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사실 기회만 있었다면 소위 "부패하는 자본주의"의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었다. 1990년 드디어 상황이 달라졌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넓은 세상이 유혹했다. 새로 문을 연 여행사들의 화려한 여행상품 안내책자와 광고들은 천편일률적으로 회색 빛을 띠던 동독 도시에서 낯설게 느껴졌다. 여행사의 광고는 아름다운 파라다이스, 눈부시게 파란 하늘과 백사장 그리고 이국적인 음식을 즐길 수 있다고 약속했다. 동독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탐색하기 위하여 떠났다. 그들은 파라다이스를 찾지는 못했지만, 1989년 이전에 꿈에 그렸던 파란 하늘과 새하얀 백사장을 만끽할 수 있었다. 음식도 집에서 먹던 것보다 맛이 좋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행지에서는 동독과 서독에서 온 관광객들을 구분할 수 없게 되었다. 낯선 땅에서는 동독 사람과 서독 사람 모두 나쁜 의미에서든 좋은 의미에서든 그냥 독일인일 뿐이었다. 이렇게 원래 하나였던 것이 종종 고향에서보다 먼 타국에서 더 빠르게 하나가 되었다.

07

청산

1991년 11월 베를린 프리드리히스하인에 위치한 오늘날의 UN광장에서 레닌 동상이 철거되었다.

사진: picture alliance / ZB / 베른트 제트닉

1990년대 초 한 남자가 슈타지문서관리청의 열람실에 앉아 자기 자신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고 있었다. "이런 나쁜 놈 같으니라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아마도 친구나 친척이 자신을 감시하고 작성한 보고서를 읽었던 모양이다. 그는 문서를 챙겨서 열람실을 나섰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어쩌면 나중에 자신을 배신한 사람을 찾아가 주먹으로 한 대 쳤을 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와 이성적으로 대화를 나누었을까? 결말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 이야기는 독일 사회 전체가 겪어야 했던 과정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배신의 정도는 부분적으로 충격적인 수준에까지 이른다. 그러나 슈타지 문서들을 공개해야만 과거를 온전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개인의 잘못과 책임에 대해 논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청산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눈을 돌려 동독 시절 일상 속에 슈타지의 감시와 억압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 할 수 있게 된다.

08

새 출발

"우리는 떠난다!" 2007년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 그라보의 한 상점 창문에 쓰여 있다.

사진: 롤프 노벨 / VISUM

장벽붕괴 이후 대규모 이주물결이 일어났다. 1990년 말까지 약 80만 명이 동독을 떠났다. 그들 중 일부는 이전부터 떠나고 싶어했지만 사회주의통일당의 국경보안체제 때문에 그러지 못했던 사람들이다. 대부분은 더 이상 고향에 미래가 없어서 떠나려고 하였다. 그 이후 동독을 떠나는 사람의 수는 현저히 줄어들었지만,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이주물결이 일어났다. 2001년에는 거의 20만 명이 동독 지역을 떠났다. 인구수가 줄면서 동독 지역의 세수입과 구매력도 감소하였다. 비어있는 주택과 결국 문을 닫아야만 하는 유치원, 학교 및 문화시설이 늘어났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계속해 다른 지역으로 떠났고 악순환은 계속 이어졌다. 특히 젊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학업이나 직업훈련을 위하여 서독 지역으로 떠났다. 그곳에서 그들은 직장을 구하고 배우자를 만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동향은 아주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1991년에서 2017년 사이 총 3,681,649명이 동독 지역을 떠난 반면 2,451,176명이 동독 지역에 정착하였다. 특히 라이프치히, 포츠담 그리고 베를린 외곽지역은 유출인구보다 유입인구가 많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대적인 인구유출의 후유증들이 아직 모든 지역에서 극복된 것은 아니다.

09

정리

깨끗하게 청소하고 넘겨주기: 1991년 AEG가 오버쇠네바이데 변압기생산공장을 인수하였다.

사진: 안-크리스틴 얀손 / 독재청산재단

기업과 함께 "정리" 대상이 된 사람들의 얼굴은 그 어떤 통계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말해준다. "정리"라는 표현 자체가 냉소적으로 느껴진다. 서독에서 온 경영인들에게는 전문용어에 불과하지만, 정리의 대상이 된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살아온 삶의 상실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동독에서는 노동이 신성시 되다시피 했다. 이는 정치적 선전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독에서는 일상의 중심에 직장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직장은 자녀보육과 스포츠 및 여가 활동을 책임져 주었고 휴가시설을 운영하고 근로자들에게 공부할 기회를 제공한 후 그들을 재고용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도 직장은 경우에 따라 실질적으로 많은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곳이기도 했다. 때로는 시멘트 한 자루, 널빤지나 모래를 얻어올 수 있었다. 게다가 직장 동료들은 무언가를 "조직"할 때면 서로를 도왔다. 이 모든 게 1990년에 사라졌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보장의 상실이 아니라, 당시까지 노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고 자신을 정의해왔던 사람들에게는 무엇보다 자존감의 상실을 의미했다.

10

신탁청

"우리 벌써 팔렸나요?" 1990년 튀링겐 주 존데르스하우젠의 "글뤽 아우프" 칼륨광산 울타리에 걸려있던 현수막 문구다. 이 광산은 신탁청에 의해 민영화될 예정이었다.

사진: picture alliance / ZB / 파울 글라저

신탁청(Treuhandanstalt)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오늘날까지 감정이 격해진다. 신탁청을 비판하는 사람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두 동의하는 딱 한 가지 사실이 있다. 1990년 3월 1일 설립 당시 신탁청에 엄청난 임무가 부여되었다는 사실이다. 신탁청은 국유재산제에 기반을 둔 계획경제를 사유재산제를 토대로 한 시장경제로 전환시켜야만 했다. 문제는 당시 상황이 매우 불리했다는 점이다. 동독의 생산기술은 낙후되어 있었고 동독산 제품들은 시장성이 없는 상태인데다가 동독 제품을 소비하던 동유럽 시장마저 붕괴되었다. 여기에 화폐통합의 충격까지 더해졌다. 기업들은 하룻밤 사이 임금을 1:1 비율로 환산해 서독마르크로 지불해야만 했다. 엄청난 부담이었다. 장벽붕괴 이전까지만 해도 동독에서 큰 인기를 누렸던 제품들 그리고 심지어 수출되기까지 했던 제품들은 아무도 찾지 않는 애물단지가 되었다. 그 이후 신탁청이 한 일들은 비판가들이 보기에 가차없는 기업 쓸어버리기였다. 반면 지지자들은 그것이 고통스럽지만 피할 수 없는 경제 재편 및 회생의 과정이었다고 말한다.

11

여성

시위 중인 비쇼퍼로데 칼륨광산의 여성 노동자들이다.

사진: 다니엘 비스쿱 / 독재청산재단

일하는 여성의 비율은 중간 관리직 이하 일자리의 경우 서독에 비해 동독이 월등히 높았다. 동독 여성들은 직업생활 이외에도 소모적인 일상의 일들을 처리해야만 했다. 무엇보다 부족한 생필품을 구하러 다녀야만 했다. 1989/90년 동독의 변화와 함께 그 이전에 만연했던 결핍은 사라졌지만, 여성들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우선적으로 "정리"되었다. 한동안은 동독 여성들이 통일의 패자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눈에 띄게 많은 동독 출신 여성들이 직업적으로 그리고 특히 정치적으로 매우 활발하고 성공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우선 레기네 힐데브란트(Regine Hildebrandt)는 브란덴부르크 주의 사회부 장관으로서 평등운동을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이 되었는데, 그녀는 여성들의 권리뿐 아니라 동독 지역 주민들의 권리를 대변하였다. 그리고 앙겔라 메르켈은 십 년 넘게 총리로서 독일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때로는 국내에서보다 국제적으로 더 크게 인정을 받고 있다. 동독 출신의 두 사람은 여성으로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을 매우 당연하고 당당하게 생각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12

재개발

작센안할트 주의 크베들린부르크 중심가에 원형대로 복원된 목골가옥들의 모습이다. 크베들린부르크는 1994년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도시다.

사진: 2004, picture alliance / ZB / 페터 피르스터

동독 지역에는 아름다운 소도시들이 많은데, 이 도시들의 시청과 광장을 둘러보면 수백 년 넘게 부와 번영을 보장해주었던 그곳 사람들의 근면성을 엿볼 수 있다. 오래된 건물의 외벽은 예쁘게 개보수 되었고 상점이나 약국이나 식당의 출입구 위에 걸려 있는 길드표시는 새롭게 도금되었다. 카페 앞에는 할머니들이 앉아 즐겁게 수다를 떨고 있다.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주민들이라면 1989년 도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기억할 것이다. 처마에 달려 있던 빗물받이 홈통은 아래로 늘어져 있고 낡은 건물벽에는 물이 스며들어 있을 뿐 아니라 건물 아래를 지나다니는 행인들의 머리 위로 기와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1980년대에는 개성 없는 신축건물을 지을 공간 확보를 위해 도시의 일부 구역 전체를 철거하려고 했다. 주민들은 욕조가 있고 제대로 난방이 되는 집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반대하지 않았다. 통일 이후 오랜 역사를 간직한 동독 도시의 중심가뿐 아니라 동독 전역의 인프라가 수십억 규모의 지원금을 투입하여 재개발되었다. 동독 시절 우중충했던 회색 빛 일상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흐려졌다.

13

상실

2008년 12월 "동독은 존재한 적 없다"고 낙서가 되어있다. 그 뒤로 동독 공화국 궁전의 터가 있다. 공화국 궁전 철거를 둘러싼 논쟁이 뜨거웠었다.

사진: picture alliance / dpa / 라이너 옌센

동해(Ostsee)와 피히텔 산지(Fichtelgebirge) 사이에는 베스트셀러를 진공 포장해 배송해주는 막강한 체인 서점의 개성 없는 지점들의 압박 속에서 오늘날까지 잘 버텨내고 있는 작은 책방들이 존재한다. 대부분 고서를 판매하는 이들 책방에서는 여전히 동독의 냄새가 난다. 분위기가 그렇다는 말이지만 실제로 동독을 연상케 하는 냄새가 나기도 한다. 아늑하고,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고, 편안한 느낌도 주고, 곰팡이 냄새가 나기도 하며 환기가 잘 안 되는 공간이다. 빈틈 없이 채워져 있는 책장에는 지층처럼 역사가 시기별로 퇴적되어 있다.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장벽 뒤 존재했던 작은 나라의 역사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지질구조를 발견하게 된다. 물론 전문가의 눈에는 빈틈이 보이겠지만 겉에서 봤을 때 먼지투성이에다가 빛 바랜 책들은 감탄을 자아내게 할 만큼 다채로운 내용을 선사한다. 이러한 책방에는 예전에 구하기 어려웠던 책들도 있다. 이곳을 찾은 사람이라면 적어도 아동 및 청소년 도서 코너에서는 마음이 약해져 잃어버린 어린 시절의 꿈을 되찾기 위해 이삼 유로 정도는 지출하게 된다.

14 오스탈기

베를린 프렌츨라우어 베르크의 후제만 거리에 위치한 한 빵집이 "동독 슈리페"를 판매한다고 선전한다.

사진: picture alliance / dpa-Zentralbild / 페어 그림

1990대에는 동독의 빵인 슈리페(Schrippe)가 큰 사랑을 받기 시작했다. 물론 더 이상은 5페니히를 주고 사먹을 수 있는 빵이 아니었다. 그러나 동독 시절에 대한 향수인 오스탈기(Ostalgie)를 상징하는 빵을 사먹는 데 있어서 가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슈리페가 막 오븐에서 나왔다. 작지만 바삭한 식감이 일품이다. 어딘지 모르게 진실되고 변질되지 않고 예전 그대로이다. 동독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과 닮아 있다. 반면 같은 종류의 서독 빵은 인공발효시키고 다양한 첨가재료를 섞어 만든다. 슈리페라는 이름을 사용하지도 않고 유기농 빵이나 고상하게 프랑스식으로 바게트라는 이름을 사용한다. 게다가 가격도 더 비싸다. 서독 사람들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한 다른 비유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동독 시절 슈리페가 국가보조금 덕분에 싼 값에 판매되다 보니 종종 닭이나 돼지 사료로 사용되었다는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을 것이다. 또는 제빵사들이 1989년까지 재료를 구하기가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대체재료를 사용하여 슈리페를 만들기도 했다는 사실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신화는 영원하며 사실을 근거로 반박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15 극우주의

훗날 신나치주의에서 탈퇴해 유명해진 잉고 하젤바흐가 1992년 베를린 리히텐베르크 기차역에 포스터를 붙이고 있다.

사진: 지빌레 베르게만 / Ostkreuz

베를린 동부 한복판에 바이틀링 거리가 있다. 특별할 것이 없던 이 도심 밖 거리는 1990년대 초 극우주의 단체인 "민족의 대안(Nationale Alternative)"의 아성이라는 슬픈 별명을 얻으며 유명해졌다. 젊은 신나치주의자들은 그들이 적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을 "진드기"라 부르며 비하한다. 이곳은 외국인과 좌파주의자들에게는 위험한 지역이다. 평화혁명 이후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현상은 그 뿌리를 동독 시절에서 찾을 수 있다. 동독에서 반파시즘과 민족 간의 우호 그리고 국제적 연대 정신을 40년 동안 교육받았는데도 일부 동독 청년들이 머리를 밀고 투박한 워커를 신고 "진드기 짓밟기"에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누군가를 도발하는 것에서 느껴지는 희열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다. 동독 시절 연대정신이 강조되었지만 아마 우편향성이 잠재되어 있었고 그것이 1990년대 초 표출되었던 모양이다. 로스토크 리히텐하겐에서 베트남인들이 살던 주택에 화재가 나자 흥분한 군중이 박수를 쳤다. 그런데 그 무리에는 결코 "스킨헤드"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16

청소년/청년문화

1990년대는 테크노 음악의 전성기였고, 해마다 베를린에서 개최된 러브 퍼레이드는 청년문화의 절정을 장식했다.

사진: 1996, 다니엘 비스쿱 / 독재청산재단

1990년대에는 베를린처럼 자유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도 없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베를린 중심가에 쇼핑몰로 사용되었다가 전쟁 때 폐허가 된 건물에 자리잡은 전설적인 '타헬레스 예술가의 집'(Künstlerhaus Tacheles)이다. 벽면이 온통 그래피티로 거칠게 장식된 이곳에서 개최된 수많은 전시회와 예술행위, 콘서트는 베를린 주정부의 재정지원과 함께 더욱 활성화되었다. 고용창출조치 덕에 상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비어있는 공장 등의 공간에서는 파티가 성행했고, 1989년부터는 테크노 음악축제인 러브 퍼레이드가 매년 베를린에서 열렸다. 정치시위라고 신고한 이 퍼레이드의 모토는 "평화, 기쁨 그리고 팬케이크"였다. 해가 거듭해도 모토가 더 구체화되지는 않았다. 러브 퍼레이드는 대규모 이벤트로 발전하고 점점 상업화되었다. 그러다가 베를린에서 뒤스부르크로 장소를 옮기고 2010년 21명의 사망자가 나오는 사고가 발생하자 결국 중단되었다. 당시 이 문화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믿기 힘들 정도로 많은 자유, 엄청난 재미와 시끄러운 음악소리로 가득했던 그때를 추억한다.

17

하나 됨

1997년 7월 27일 프랑크푸르트 오더에서 연방군 군인들이 모래 주머니로 둑을 보강하고 있다.

사진: SZ Photo / 요헨 에켈

1990년 사람들이 가졌던 통일에 대한 기대와 희열은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졌다. 동독과 서독 간의 차이와 낯설음이 점점 더 빈번하게 드러났다. 그러다가 다름이 아닌 홍수재해가 발생하면서 독일은 다시 결속력을 다지게 된다. 1997년 7월 17일 오더(Oder) 강이 범람하여 브란덴부르크 주에 홍수가 발생했다. 여기에 연일 이어진 비로 둑이 약해졌다. 브리스코 핀켄헤르트에서 둑이 터지고 에른스트-텔만-주거지가 물에 잠겼다. 프랑크푸르트 오더에서는 7월 27일에 오더 강 수위가 6.57미터의 기록을 세웠다. 모래주머니를 쌓아 만든 임시 둑도 수위가 몇 센티미터만 높아지면 넘칠 상황이었다. 사고예방 차원에서 오더브루흐 북부 지역 주민 6천5백 명을 대상으로 대피명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떠나지 않고 연방군 군인들과 함께 밤낮 없이 주머니에 모래를 채워 둑이 터진 부분들을 메우는 작업을 도왔다. 모든 연방주에서 기부금을 보내왔고 필요한 인력보다 종종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왔다. 잠수부들은 물에 들어가 안쪽에서부터 둑에 비닐을 대며 방수처리를 했다. 수위가 점차 낮아졌고 오더브루흐 지역은 위기를 모면하였다. 모두가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한 당시의 경험은 전설이 되었다.

18

이웃

2007년 12월 21일 자정이 지난 직후 프랑크푸르트 오더에 위치한 국경검문소에서 출입국 심사가 폐지된 것을 수백 명이 모여 축하하였다.

사진: picture alliance / dpa / 파트릭 플러일

오늘날 프랑크푸르트 오더와 폴란드의 스우비체 사이를 잇는 다리는 값은 절반 수준이지만 맛은 두 배 더 좋은 과일과 채소를 사기 위해 폴란드로 향하는 독일인들이 매일같이 건너는 곳이다. 다리만 건너면 미용실이나 치과 역시 싼 값에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비아드리나 유럽대학교(Europa-Universität Viadrina)와 콜레기움 폴로니쿰(Collegium Polonicum)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2007년 12월 21일 밤, 모든 국경 차단기가 열리자 독일과 폴란드 학생들이 다리 위에서 함께 유럽가를 불렀다. 오늘날에는 유럽가인 "환희의 송가"의 가사처럼 모두가 형제라는 사실은 더 이상 입증할 필요가 없어진 듯하다. 폴란드와 독일 사이의 국경선은 유럽 내 그 어떤 국경선보다 자주 바뀌었고 그 과정에서의 폭력과 분쟁으로 많은 사람이 고난과 고통을 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역사상 처음으로 독일은 모든 이웃국가들과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다. 어쩌면 독일의 통일이 유럽통합의 일환으로 달성되었다는 점이 독일통일의 성공비결일지도 모른다.

19

미완성

2015년 10월 2일, 베를린 어느 거리의 모습이다.

사진: picture alliance / dpa / 라이너 옌센

많은 동독 지역 주민들은 오늘날에도 언짢아 한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주의통일당의 지도자들을 힘을 합쳐 쫓아버렸던 1989년 당시처럼 화가 난다고 말한다.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당(AfD)이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했다. 이 당의 선거포스터에는 "동독이 일어난다" 또는 "전환을 완성하라" 같은 문구들이 등장한다. 이러한 분위기는 독일의 전반적인 변화와는 분명하게 대비된다. 물론 동독 지역의 임금, 재산, 생산성 수준은 여전히 서독에 비해 낮고 실업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1990년대와 비교하면 동독 지역의 경제력은 두 배 성장했고 2019년 8월 기준 실업률은 6.4%로 2000년 대비 약 삼분의 일 수준을 기록했다. 작센(5.4%), 튀링겐(5.3%), 브레멘(10.3%) 그리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6.7%) 등의 주를 비교하면 한 가지 사실이 확실해진다. 더 이상은 독일 내 사회적 격차가 무조건 동서독 지역 간 격차라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동독 지역이 더 낙후되었다고 불만을 늘어 놓는 사람은 불화를 조장하며 더 나아가 포퓰리즘을 이용해 자기 잇속을 챙기려는 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줄 뿐이다.

20

중간 결론

노이루핀 근교 167번 연방도로에 위치한 베흘린 방앗간의 트라비-황새둥지는 1998년 이래 이 지역의 상징이자 관광명소가 되었다.
사진: picture alliance / dpa-Zentralbild / 옌스 뷔트너

독일통일 직후 동독이 경험한 격변기에 대한 기억은 1989년 가을에 일어난 평화혁명부터 1990년 10월 3일 독일통일에 이르는 다사다난하고 강렬한 장면들로 가득한 시기에 대한 기억에 가려져 오랜 시간 조명을 받지 못했다. 최근에 들어와서야 TV 다큐멘터리, 영화, 소설뿐 아니라 박물관도 통일독일의 역사를 보다 집중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통일 직후의 시기는 생각하고 질문할 거리를 많이 제공한다. 전체주의 과거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집단 트라우마 형성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한 국가 안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상에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슈테판 하임(Stefan Heym) 작가는 동독을 "역사의 각주"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독일통일의 역사를 실패와 성공을 아울러 온전히 이해하고자 한다면 사회주의통일당의 독재와 분단의 결과들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감사의 말과 안내사항

감사의 말

본 사진전을 위해 사진을 제공해준 여러 사진작가 및 아카이브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특히 dpa통신의 이미지에이전시인 picture alliance, laif Agentur für Photos & Reportagen, 사진작가 에이전시 Ostkreuz를 비롯하여, 사진전에 사용된 사진의 대다수를 제공해준 다니엘 비스쿱(Daniel Biskup), 하랄트 하우스발트(Harald Hauswald) 그리고 안-크리스틴 얀손(Ann-Christine Jansson) 작가에게 감사 드립니다.

"격변하는 동독지역. 변화 속 삶" 사진전은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면 학교 내외 교육을 위한 DIN A1 크기의 포스터세트 형태로 주문 가능합니다. 그 밖에도 사진전은 역사 및 정치 교육 그리고 해외에서의 독일문화 관련 활동을 위하여 다양한 크기와 언어로 제공이 됩니다. 2020년 3월부터는 웹사이트*www.umbruch-ost.de*에서 교육용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사진, 영상, 텍스트를 비롯한 사진전의 모든 구성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복제, 수정 또는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사진의 저작권자는 각 사진설명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진전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가요? 또는 사진 검색 시 모든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저작권이나 활용권이 침해되었나요? 게오르그 그렘스케(Georg Gremske) 담당자에게 연락 주십시오. *g.gremske@bundesstiftung-aufarbeitung.de*

"격변하는 동독지역. 변화 속 삶"은 통일독일의 역사에 관한 사진전으로 슈테판 볼레의 글과 다니엘 비스쿱, 하랄트 하우스발트, 안-크리스틴 얀손 그리고 그 외 사진작가 48인의 128개 사진을 선보입니다. 본 사진전은20개의 전시판넬과 함께 통계자료를 정리한 3개의 추가적 판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독 사회주의통일당 독재청산재단과 신연방주를 위한 연방정부 특임관이 주최하고 북부독일방송(NDR)과 슈타티스타가 협력하여 마련한 사진전입니다.
본 전시회는 라이프치히 출신의 그래픽전문가 토마스 클렘이 디자인하고 동독 사회주의통일당 독재청산재단의 울리히 멜러트가 큐레이팅하였습니다. 사진 자문: 안-크리스티네 얀손 그리고 하랄트 하우스발트. 안드레아스 헬레가 신연방주 특임관을 대신하여 프로젝트 팀에 참여하였습니다. 사진전에 관한 문의는 동독 사회주의통일당 독재청산재단의 게오르그 그렘스케 프로젝트매니저가 담당합니다. 편집부: 헬렌 바우어파인드. 발행 및 판매: Ernst Vögel Druck + Verlag, Stamsried.
한글본 발간: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 5·18기념재단. 후원기관: 통일교육원. 번역: 안미라.
www.bundesstiftung-aufarbeitung.de | www.ostbeauftragter.de

동서독 인구

동서독 지역의 실업률은 점점 비슷해진다.

실업률 (동/서)

* 1-9 월 평균값

동독 작센 주의 실업률은 서독 브레멘 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연방주 별 실업률 (2019 년 9 월 기준)

동독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의 지자체들이 가장 빚이 적다.

자자체(게마인데/게마인데연합)의 채무상황 (10억 유로 단위, 2019년 3월 31일 기준)*

* inkl. Wertpapierschulden, Kredite und Kassenkredite beim nicht-öffentlichen Bereich

최저생계보장 급여 수급자 비율은 도시주(Stadtstaat)가 더 높다.

연방주 별 최저생계보장 급여 수급자 비율(2018년)

동독 지역 여성들의 고용률이 더 높다.

여성 고용률이 남성 고용률보다 …%p 높다/낮다.

고위직 내 여성

경제계 고위직 내 동서독 지역 출신자* 중 여성 비율(2019년)

동독 지역 출신 여성이 정치계 고위직에 오르는 경우가 더 많다.

정치계 고위직 내 동서독 지역 출신자 중 여성 비율(2019년)

동독 지역의 인구수는 정체 상태다.

동서독 지역의 인구수 (백만 명 단위)

* 베를린 제외 ** 베를린 포함

서독 지역에서 동독 지역으로의 이주가 반대방향으로의 이주를 최초로 추월하였다. 동서독 지역 간 이주 (천 명 단위)*

* 동독 지역의 경우 베를린 제외

동서독 지역 간 기대수명 격차가 사라지고 있다.

출생 시 기대수명

"동서독 인구" 판넬은 슈타티스타(Statista)가 **"격변하는 동독지역, 변화 속 삶"** 전시를 위하여 제작하였다.
독일통일에 관한 기타 수치와 사실들은 www.statista.de/deutsche-einheit에서 제공된다. 모든 자료는 학교와 대학에서 무료로 접근 가능하다.

출처: 연방노동청(Bundesagentur für Arbeit), 연방인구연구소(Bundesinstitut für Bevölkerungsforschung), RBB, 연방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

statista

디자인: 세실리아 로아스(Cecilia Rojas), 안네 게이크(Anne Geick), 미리암 카이저(Miriam Kaiser)

동독과 서독에서의 태도

자체 평가

이상적인 삶?

나는 내 삶이 전반적으로 내가 바라던 이상적인 삶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조사 대상: 성인 취업자 8,004명, 2017년 4월

동서독 지역 주민들은 서로 닮아있다.

자기 삶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설명에 동의하는 응답자의 비율

조사 대상: 독일 응답자 23,086명(만 14세 이상); 2016년 10월과 2018년 3월 사이 4차 조사

독일통일

동독 지역과 서독 지역 간의 격차가 뚜렷하다.

동서독 지역 간 공통점이 더 많은가? 차이점이 더 많은가?

조사 대상: 독일 선거권자 1,297명, 2019년 6

오늘날 동독 지역 주민들의 삶은 과거 동독시절보다 나아졌다.

구 동독 출신자 중 현재 동독 지역 주민들의 삶이 동독시절에 비해 나아졌다/나빠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

조사 대상: 구 동독 출신자로 현재도 5개 신연방주에 거주하며 만 45세 이상인 주민 1,500명, 2019년 8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독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통일 이후 독일의 변화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가?

조사 대상: 각 연도 별 독일 선거권자 1,000명

시민들의 궐기

1989년 가을에 일어난 평화혁명의 역사적 성과는 오늘날 일반적으로 …의 업적이라고 평가된다 (2009년).

조사 대상: 1,920명(만 18세 이상), 2009년 7월

이주

동독 지역: 외국인은 더 적지만 외국인에 대한 거리낌이 더 크다.

○ 외국인 비율*　● 외국인 이웃을 원하지 않는 응답자**

XX XX건의 외국인 혐오 사건, 2016년 인구 1백만 명 당***

* 기준: 2018년 11월 30일
** 조사 대상: 4,968명, 2017년
*** 난민에 대한 공격, 난민숙소 방화, 위법 행위가 수반되는 시위, 반달리즘

이주자

3/4은 독일 민주주의에 만족한다.

독일 민주주의의 실현 방식과 형태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응답자들

조사 대상: 각 연도 별 독일 내 약 1,500명(만 15세 이상)

독일인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다음을 매우 두려워하는 응답자의 비율

조사 대상: 독일 내 2,400명(만 14세 이상), 2019년 5-7월

"동독과 서독에서의 태도" 판넬은 슈타티스타가 **"격변하는 동독지역, 변화 속 삶"** 전시를 위하여 제작하였다.
독일통일에 관한 기타 수치와 사실들은 www.statista.de/deutsche-einheit에서 제공된다. 모든 자료는 학교와 대학에서 무료로 접근 가능하다.

출처: 아마데우 안토니오 재단(Amadeu Antonio Stiftung), ARD 도이취란드트랜드(ARD-DeutschlandTREND), 바르머(Barmer), 베르텔스만 재단(Bertelsmann Stiftung),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RTL/n-tv, R+V 보험(R+V Versicherung), 연방통계청, 국민연대(Volkssolidarität), VuMA, ZDF 정치바로미터(ZDF Politbarometer)

statista

디자인: 세실리아 로아스, 안네 게이크, 미리암 카이저

통일 세대

교육과 취업

동독 튀링겐 주의 아비투어 성적이 가장 우수
교육과 취업 관련 주요 데이터

* 해당 연령의 전체 인구 대비

동독과 서독 지역 여성의 출산연령이 같아졌다.
첫 아이 출산 시 여성의 평균연령

* 동베를린을 포함한 신연방주, 2001년부터 베를린 제외

오늘날에는 동독 지역 여성들이 서독 지역 여성들보다 늦게 결혼한다.
독일 여성의 결혼연령

* 1990년부터 베를린 제외 ** 1990년부터 베를린 포함

동독 지역 내 부부관계가 과거보다 더 돈독해졌다.
부부 10,000 쌍 당 이혼 건수

* 1990년부터 베를린 제외 ** 1990년부터 베를린 포함

청소년

청소년들이 지출 할 수 있는 금액
소비와 저축을 위해 청소년들이 매달 사용할 수 있는 금액

조사 대상: 1,600명, 만 16-25세, 2019년 1월

작센안할트 주와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주민들이 가장 덜 사교적이다.
친구, 친지 또는 직장동료를 매우/비교적 자주 만나는 응답자의 비율

조사 대상: 4,968명, 2017년

동독 지역 청소년들은 포퓰리즘에 보다 쉽게 휩쓸린다.
청소년의 비율

조사 대상: 독일 청소년 2,572명(만 12-25세), 2019년 1-3월

독일 청소년들의 정치적 (무)관심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는 독일 청소년의 비율

조사 대상: 2,572명, 만 12-25세, 2019년

"통일 세대" 판넬은 슈타티스타가 **"격변하는 동독지역. 변화 속 삶"** 전시를 위하여 제작하였다.
독일통일에 관한 기타 수치와 사실들은 www.statista.de/deutsche-einheit에서 제공된다. 모든 자료는 학교와 대학에서 무료로 접근 가능하다.

출처: 베르텔스만 재단, 연방노동청, 연방보건교육센터(Bundeszentrale für gesundheitliche Aufklärung), 콤디렉트 방크(comdirect Bank), 교육문화부장관협의체(Kultusministerkonferenz), 셸 청소년연구조사(Shell Jugendstudie), 연방통계청

statista

디자인: 세실리아 로아스, 안네 게이크, 미리암 카이저

격변하는 동독지역 변화 속 삶

FRIEDRICH EBERT STIFTUNG

5·18 기념재단

facebook.com/umbruchost

Der Beauftragte der Bundesregierung für die neuen Bundesländer

BUNDESSTIFTUNG AUFARBEITUNG

FRIEDRICH EBERT STIFTUNG

5·18 기념재단

통일부 통일교육원